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관식과 시상식 갖고, 우수학생 발명품 6백여점 전시



▲ 발명 꿈나무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발명 꿈나무들의 축제 마당인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개관식과 시상식을 갖고 25일까지 전국에서 출품된 총 4천여 발명품 중 우수 학생 발명품 6백여점을 전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특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LG전자(주)가 협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학생발명축제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출품된 발명품 중 최우수 작품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자전거 정지시 두발로 서게 내려가는 안장'을 발명한 한양대학교 4학년 심대선 학생이 선정되었다. 국무총리상에는 '안 빠지고 잘 빠지는 하수구 홀'을 출품한 박태영(부산 양성초 6학년)군이 선정되었다. 특별상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 '자전거 잠금장치'를 출품한 강동완(대전 삼천중 1학년)군이, 조선일보사장상에는 '간편하게 커튼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커튼고리'를 출품한 이효준(대전 서일고 1학년)군이 뽑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우수 발명품 중 10점은 오는 8월 27일부터 4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발명전'에 초청받아 전시될 예정이며, 금상 이상 수상자 15명에 대해서는 국제청소년발명전을 참관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밖에 장려상 이상 수상자 1백92명은 지난 7월 21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에서 'LG전자와 함께하는 발명캠프'에 참가하여 다양하고 즐거운 발명프로그램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시상식에서 치사를 통해 '발명은 소수의 천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을 통해 발명가를 양산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명전에서 수상한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재목이 되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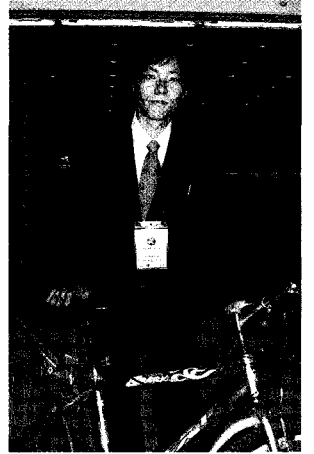
특허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온 국민의 발명 생활화를 위해 애쓸 것을 약속하였고, 발명공작교실과 학교발명활동의 활성화를 도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발명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 지난 7월 21일 전시회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왼쪽부터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 임경배 한국학교발명협회장, 이종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하동만 특허청장, 김영수 LG전자(주) 부사장, 민경택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김양오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좋아하는 것에 관심 갖다보니 발명하게 됐어요'

'제17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자전거 정지시 두발로 서게 내려가는 안장'을 발명한 심대선(한양대 분자시스템공학과 4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 '자전거 정지시 두발로 서게 내려가는 안장'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대선 학생.

이 발명품은 자전거 손잡이에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페달을 달고 이 페달을 안장 봉 안에 연결된 스프링과 이어지게 하여 안장의 높낮이를 손쉽게 올리고 낮출 수 있게 한 것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펜의 스프링 원리를 응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심대선 학생은 '평소 즐겨 타는 자전거가 두 발로 페달을 밟고 달릴 때 보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멈춰 설 때가 더 위험함을 알고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정지시 저절로 내려오는 안장을 발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과학자를 꿈꾸던 심군이 직접 발명품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 '처음으로 제작한 발명품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할 줄은 몰랐다'는 심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이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심군이 이번 발명품에 대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군대가기 전 대학 2학년 때인 98년.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기까지 무려 6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자세가 지금의 영광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군의 이 발명품은 현재 실용신안 등록 중이며, 앞으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불편한 점이 보인다면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취급제품 침구류, 속옷류, 커튼류, 임부복, 기타 소품류 등 섬유제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hwanggi.com>

우리 조상들의 지혜롭고 현명했던 황토사랑을
오늘에 맞게 연구 개발한 황토천연염색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시원염색제	
제품명	시원염색제
주요성분	천연염료, 염착제, 염착제, 염착제
용량	1kg
가격	10,000원

2004년 한국여성발명협회	
제품명	2004년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요성분	천연염료, 염착제, 염착제, 염착제
용량	1kg
가격	10,000원

2004년 한국여성발명협회	
제품명	2004년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요성분	천연염료, 염착제, 염착제, 염착제
용량	1kg
가격	10,000원

황기도아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473-1
TEL (061)783-5515, 5942
FAX (061)783-5861